

아르떼 포베라(Arte Povera)가 현대패션에 미친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엄 소 희

원주대학 의상과

아르떼 포베라(Arte Povera)는 1960년대 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운동으로 물질만능주의적인 문화 현상에 회의를 품기 시작한 예술운동 중의 하나이다. 1967년 9월 이탈리아의 제네바에서 열린 아르떼 포베라 에 임 스파지오(Arte Povera e IM Spazio)라는 전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인 아르떼 포베라(Arte Povera)의 의미는 '빈곤함', '보잘 것 없는'이라는 형용사로서 현실묘사, 재현 혹은 언어적인 습관과 유사한 모든 것을 배제하자는 의도아래 빈곤의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예술로 발생하였다. 이것은 예술작품을 통하여 기존의 의미나 표현방식을 거부하고 당시 사회일반의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따라 기존권위와 위계질서를 타파하려는 전위운동으로서 일상생활의 오브제(object)를 예술적 문맥으로 도입시킨 다다, 누브리얼리즘, 팝아트 등, 그리고 1960년대 말 아르떼 포베라(Arte Povera)와 거의 동시대적으로 발생하고 전개되었던 미니멀 아트, 대지예술, 개념예술 등의 제 경향들과 상호침투적인 관련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아르떼 포베라의 특성 및 여러 예술양식들과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아르떼 포베라가 현대패션에 미친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르떼 포베라는 누브리얼리즘이나 팝아트가 사용하였던 확실적인 제품이나 패품과는 다른 빈곤하고 보잘 것 없는 재료 특히, 자연대상물을 주로 사용하여 산업사회와 예술상품화에 대한 반발로서 빈곤함, 보잘 것 없음을 절대적 가치로서 표현하고 작품에 있어서 전통적인 조형성의 기준을 거부하고 또 전체적인 작품형태를 거부하며 사회, 정치, 경제 등 그 당시에 내재되어있는 본질적인 현실문제를 다루는 실험적인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아르떼 포베라의 특성을 작가의 기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아르떼 포베라 작품의 특징은 1)빈곤하고 하찮은 재료 자체의 물성 강조, 2)무 형식적 반 형태(anti-form), 3)자연성의 추구, 4)재료나 형태가 갖는 상징적 의미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특징을 중심으로 현대복식에 표현된 아르떼 포베라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인간의 빈곤, 소외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빈곤성, 전통적인 양식과 형식의 해체를 통한 반 형태성, 근원으로의 회귀를 위한 자연성, 재료나 형태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는 상징성으로 표현된다. 첫째, 빈곤성은 소재의 빈곤성과 형태의 빈곤성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표현수단이나 표현효과의 극소화, 패치워크, 손바느질의 투박성, 의도적 미스매치, 중고 스타일과 같은 외적형식을 통해 표현되며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빈곤, 소외감의 직접적 표현, 소비사회에 대한 반발, 부와 빈에 대한 이중적 코드양식이라는 내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반 형태(Anti-Form)성

은 인체의 왜곡을 통한 비 정형적 실루엣과 배열과 착장의 오류를 통한 변용과 전위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형태, 색상, 비례, 사이즈 등 미적 원리를 무시하거나 복식형태의 의도적 파괴, 역전구성을 통한 착장의 왜곡과 같은 외적형식을 통해 표현되며 이러한 표현은 전통성의 거부, 합리성 개념의 무시, 착장의 논리 부정, 미·추 개념의 해체라는 내적 의미를 갖는다. 셋째, 자연성은 자연소재의 적용과 원시적 표현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신체노출, 아플리케, 수 공예기법 등의 외적형식을 통해 표현되며 이러한 표현은 자연과의 융합, 유토피아적 추구, 현대 문명에의 회의에서 오는 비문명 세계의 대한 동경이라는 내적 의미를 갖는다. 넷째, 상징성은 인간의 소외현상이나 시대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기성 오브제의 도입, 다양한 재료의 도입, 소재 사용의 왜곡, 복식과 타 영역간의 경계 해체, 역동적 색채, 하이테크한 표현과 같은 외적형식을 통해 표현되며 이러한 표현은 영역의 해체, 복식요소의 상호 텍스트성, 소재의 적절성에 대한 기존 관념의 탈피, 복합성, 애매성, 불규칙성, 열린 개념으로써의 공간구성이라는 내적 의미를 갖는다.

그 당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일상의 현실과 사건을 직면하게 하여 예술의 사회화를 이루고자 한 아르떼 포베라의 예술정신은 패션의 표현영역에 정신적 세계를 담아냄으로써 정신적 표현과 일상적 삶의 구분을 거부하고자 하는 현대패션의 흐름과 그 맥을 함께 한다 하겠다.